

고귀한 고생은 인생백신입니다

윤은기 (예 중위, 학사 70기, 본회 정책자문위원)



값진 보검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쇠를 달구어 수없이 연마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교육과 학습은 쉽고 재미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

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교육에 흥미를 유발하고 참여도를 높히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높은 수준의 역량을 기르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고의 교육은 고귀한 고생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다. 고생도 여러가지가 있다. 고귀한 고생도 있지만 생고생 개고생 헛고생도 있다. 고귀한 고생은 보람과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겪는 고생이다. 반면에 생고생이나 헛고생은 왜 하는지도 모르고하는 고생이다.

몇년전 중앙공무원교육원장으로 부임했을 때 이야기다. 중앙공무원교육원(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모든 국가공무원의 교육을 총괄하는 곳이다. 이곳의 여러 과정 중에 '신입사무원과정'이 있다.

매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300여명의 예비사무원들이 입과해서 5개월간 교육과 훈련을 받고 사무관으로 임용된다. 군에 비교하자면 사관후보생과정이다. 원장으로 부임해보니 이 과정이 다소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학생들은 고시공부에 매진하다가 합격을 했으니 정신력이 이완되어 있었고 몇개월 후 사무관으로 임용될 사람들이니 과정담당자나 강사들도 최대한 예우를 해주는 분위기였다. 나는 여러 HRD이론과 자문을 거쳐 가장 빠른 과정으로 개편하였다.

우선 산업체 견학프로그램을 현장근무 체험으로 바꾸었다. 버스를 타고 대기업 몇 곳에 가서 견학을 하고 오는 당일 프로그램 대신 두세명씩 조편성을 하여 전국 100여 개 중소기업 생산현장에 가서 일주일간 근무토록하였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중소기업은 기본 적도 없는데 일주일씩 작업복을 입고 땀을 흘리며 고생하였다. 교육원 복귀 후 근무일지를 토대로 분임토의를 하고 정책건의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등에 보냈는데 매우 실용적 아이디어라는 호평을 받았다.

고귀한 고생을 한 것이다. 이 체험은 나중에 학생들이 정부 여러 부처에 배속되었을 때 중소기업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또한가지 큰 변화는 안보견학프로그램이었다. 버스 몇대를 나눠타고 휴전선 인근 부대를 찾아가서 브리핑을 듣고 오는 안보견학프로그램을 병영체험 프로그램으로 완전히 바꾸었다. 전원 특전사에 가서 군복으로 같이입고 함께 뛰고 구르면서 강도높은 훈련을 받았다. 특히 막타위에서 강하하는 힘든 훈련을 한사람도 나오없이 수행하였다. 부대견학프로그램과 병영체험훈련은 군을 이해하는데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그 밖의 일반과정 교육과 평가도 모두 강도높게 개편하였다.

학생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하필이면 새로 부임한 원장한테 걸려 생고생하는구나' 그러나 수료할 때가되자 반응이 달라졌다.

'우리 기수가 가장 강한 교육을 받았다. 우리가 각 부처의 기동이 되겠다'

그동안 고귀한 고생을 한 보람과 자긍심이 살아난 것이다. 이 학생들이 지금 정부 각 부처에서 중견간부로 일하고 있는데 어찌다 만나게 되면 고귀한 고생을 했던 교육 과정에 대해 지금도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나도 군대 생활을 한지 어느덧 수십년이 지났다. 일년에 몇번씩 동기생들이 모인다. 군생활 이야기를 할 때는 마치 현역으로 돌아간듯 활기가 넘친다. 누가 가장 큰소리를 치겠는가? 가장 힘든 부대 가장 힘든 부서에서 근무했던 친구다.

특히 오지 벽지에서 근무했던 친구들이 큰소리를 친다. 이 친구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군대생활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단련의 시간이었다는 것이다. 인간의 삶이란 결코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온갖 풍상과 고난을 헤쳐나가야 한다.

젊어서 고생은 바로 고난을 만났을 때 백신 역할을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군대는 결코 자유로운 곳이 아니다. 풍요로운 곳도 아니다.

그러나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소중한 곳이다. 국민의 기본의무를 수행하는 보람있는 곳이다. 헛고생을 하는 곳이 아니라 고귀한 고생을 하는 곳이다. 당장은 고생이 되더라도 지금 이 시절이 내 삶의 백신 역할을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도 좋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 말이 왜 나왔겠는가. 군생활을 때우는 시간으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단련의 시간으로 보낼 것인가에 따라 미래의 내 모습도 달라질 것이다//

설함에 따라 육군과 해군도 발빠르게 미사일우주정착탑, 전투체계·우주정책발전과를 각각 신설했고, 공군은 우주발전 청사진을 담은 스페이스 오디세이 퀀텀(Space Odyssey Quantum) 프로젝트와 '공군비전 2050'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군 창군 100주년이 되는 시점에 고출력레이저 위성추적체계, 초소형정찰위성, 레이더우주감시체계, 조기경보위성체계, 지향성에너지무기 및 대(對) 위성무기 등 다양한 우주전력을 운용하고 우주사령부를 창설한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는 미 공군의 우주군 창설을 계기로 확대된 국가안보 차원의 우주작전개념을 반영한 우주작전교리를 개정했다. 우주작전은 정치·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주력을 활용해 수행하는 모든 군사활동을 말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우주작전은 공군뿐만이 아니라 합동 차원에서 육·해·공군의 우주자산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개념으로 발전돼야 한다.

전쟁사를 통해 보면, 고대로부터 군은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고지대의 점령이 필요하다고 인식해 왔다. 지상전에서는 고지대를 장악한 부대가 예외 없이 작전 수행에 필요한 가시성과 우세한 정

보력을 활용해 기동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항공기의 등장으로 공중우세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제는 공중을 넘어 우주에서의 우세를 추구하고 있다.

우주산업은 최첨단 과학기술의 총아이며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민·군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우주개발 패러다임이 국가 주도에서 민간 기업 중심(New Space)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방산기업인 KAI, LIG 넥스원, 한화시스템 등이 우주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때마침, 우리 군도 육·해·공군이 경쟁적으로 우주력을 구비하기 위해 우주 비전을 설정하고 조직 신설 및 확충, 우주정책 연구 및 소요 제기, 우주발전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의 최고 교육기관인 국방대학교에서도 국방우주력 발전에 필요한 민간우주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민·군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민·군이 혼연일체로 국가우주산업을 활성화하고, 군이 지향하는 우주력 강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는 데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 본 내용은 국방일보 2021.3.4. 보도사항으로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의 일독을 권장합니다)

항공우주의 중요성

조관행 (공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부교수)



1990년대 중반, 여러 달 월급을 아껴 모은 거금으로 천체망원경을 구입해 플레이아데스 성단, 알데바란, 시리우스 등을 관찰하곤 했다. 저 멀리 보이는 작은 별빛이 어찌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드넓다고 생각했던 지구가 우주 전체에서는 모래알같이 작은 존재임을 알게 됐고, 지구에서 살아가는 나 자신의 유한함을 느꼈다.

하지만 우주는 우리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가능성을 가져다주기에 분명 아름답고 매력적인 곳이다. 먼 미지의 공간이라고만 생각했던 우주는 현재 국가의 생존과 안보에 직접적 관련이 있다. '우주에서 지상'으로, '지상에서 우주'로, '우주에서 우주'로 다양한 위협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활을 걸고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그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우주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항공기가 발명되기 이전, 전장은 주로 지상과 해상이었다. 하지만 1903년 라이트 형제가 동력비행에 성공한 후, 공중은 가장 중요한 전장이 됐다. 공군은 하늘을 지배하며 공중우세 및 정보우세 달성을 통해 전승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항공전략가인 존 와든은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이래, 적이 공중우세를 달성한 상태에서 어떤 국가도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공중우세 달성은 군사적 승리의 서곡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공중우세 확보와 함께 우주우세를 달성하는 것이 전쟁 승리의 선행 조건이 될 것이다. 최초로 우주작전이 이뤄졌다고 평가받는 1991년의 걸프전쟁에서는 44기의 위성이 기상·정찰·통신·항법 등에 활

용됐다. 또한 1999년 코소보전쟁에서는 80여 기의 위성과 함께 GPS 정밀유도폭탄인 JDAM이 최초로 사용됐다. 이후 군사선진국들의 우주에 대한 투자는 강화되고 있으며, 우주작전이 점점 중요해지는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 또한 가속화될 것이다.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는 인공위성은 2000여 개이며, 2020년 2월 기준으로 758개의 위성이 한반도를 관측할 수 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이 위성들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탐지·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우주물체 등에 대한 '우주 감시'를 포함해 우주작전에는 우주정보 지원, 우주통제, 우주 전력 투사 등이 있다.

이 우주작전과 연계해 공군은 '에어포스 퀀텀 5.0'에서 '스페이스 오디세이 프로젝트'를 통해 2050년까지 10년 단위 단계별 목표역량과 발전 방향을 설정했다. 2030년까지인 1단계의 목표는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 등 우주역량 강화'다. 2040년까지인 2단계에서는 '항공자산 활용 우주 회복탄력성 등 공중·우주 통합작전능력 구비'를, 2050년까지인 3단계에서는 '선별적 우주우세 역량 확보'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제 우주는 선택이 아니라 사활적 생존과 관련된 것이다. 공군은 주도적으로 3단계 중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 접근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우주작전을 선도하는 공군에 국민적 관심과 성원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우주우세 확보가 전쟁 승리의 선결 조건임을 인식하고 우주전장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전략적 해안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준비해야 한다. 수많은 별이 빛나는 아름다운 밤하늘을 이제는 낭만의 대상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본 내용은 국방일보 2021. 3.9 보도사항으로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의 일독을 권장합니다.)

민·군 협력을 통한 국방우주력 강화

안재봉 (예 준장, 2사 5기, 공군발전협회 항공우주력연구위원)



세계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었던 2000년을 앞두고, 육·해·공군이 경쟁적으로 구호를 제정한 적이 있다. 그때 나온 구호가 육군은 '미래로 세계로', 해군은 '바다로 세계로', 공군은 '하늘로 우주로'였다.

초연결과 초지능으로 특징지어지는 제4차 산업혁명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도 예외가 아니었다. 육군은 5대 게임체인저, 히말라야 프로젝트, 아미 타이거(Army TIGER)를, 해군은 스마트 네이비(Smart Navy)를, 공군은 스마트공군과 에어 포스 퀀텀(Air Force Quantum) 5.0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국방우주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국방부가 미사일우주정책과를 신

대한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치신 외국인, 험버트박사

황태인 (예 중위, 학사 70기, ㈜ 토브넷회장)



2021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2주년 되는 해다. 3월 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부터 국경일로 지정되어 '독립선언일'

로 선포되었으며 독립운동가들과 온 민족에게 가장 큰 기념일이자 축제의 날이다. 3.1운동을 기념할 때마다 대한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치신 외국인 호머 험버트박사를 떠올리게 된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험버트박사를 생각하며 그 사랑의 힘이 무엇일까. 필자는 매년 1월26일에 험버트(Homer B. Hulbert) 탄신일을 맞아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내 그의 묘소를 참배한다. 올해는 그의 탄신 158주년이 되는 해이다. 필자는 험버트의 일대기를 읽고 그의 한국 사랑에 감동을 받아 험버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현재 (사)험버트박사기념사업회에 펠로우(Fellow)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인 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험버트는 조선 말기 우리가 문을 꼭 닫고 살던 암울한 시기에 조선의 문명 진화를 위해 헌신하셨고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였던 대한제국시기에는 독립운동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오죽하면 안중근 의사가 1909년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뒤 뤼순감옥에서 그 해 12월 2일에 "험버트는 한국인으로서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최상의 존경을 표했겠는가.

험버트는 1863년 1월 26일 미국 버몬트주에서 출생하여 1884년 아이비리그의 하나인 명문 다트머스대학을 졸업하였다. 그 해 유니언신학교에 들어갔다가 1886년(고종 23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관립학교인 육영공원(育英公院) 교사로 초청을 받아 미국인 동료 교사 2인과 함께 영어, 산수, 지리, 심지어 정치 경제학 등을 가르치며 근대 교육의 주춧돌을 놓았다. 1905년 을사늑약을 막아보고자 고종황제의 밀사로 임명되어 고종의 친서를 휴대하고 미국 대통령을 면담하려 했으나 일본의 농간으로 실패하고 대신 국무장관을 만나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였다. 고종에게 1907년 네델란드에서 열리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보내도록 건의하였다. 험버트는 한국문

제가 헤이그평화회의에서 토의되도록 조약 상대국을 설득하는 황제의 밀사(Special Envoy)로 임명되어 헤이그로 갔다. 험버트는 1907년 7월 일본의 박해로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헤이그에서 미국으로 돌아가 매사추세츠주 스프링필드에 정착하여 이후 언론 기고 및 강연을 통해 1945년 광복을 맞을 때까지 온 생애를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일에 바쳤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한가지는 험버트는 한글사에 지대한 업적을 남겼다. 험버트는 조선 말기부터 일제 강점기에 이르기까지 한글 보급과 근대 지식 교육의 기틀을 닦았으며 세종대왕 이후로 가장 먼저 한글과 우리말의 가치를 주목하고 한글로 글을 썼다. 1891년에 험버트가 편찬한 《사민필지(士民必知)》가 그것이다. 《사민필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순 한글 5대양 육대주 세계지리 교과서이며 험버트는 서문에서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 등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주시경 선생이 우리말의 문법을 완성했다면, 험버트는 한글 전용의 지평을 열어 준 한글의 중시조라 불릴 수 있다. 험버트는 대한민국 수립 후 국민으로 초대받아 1949년 7월 29일 인천항으로 내한하였으나, 여독을 이기지 못하고 1주일 만에 서거하여 양화진(楊花津) 외국인묘지에 묻혔다. 험버트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고 늘 한국 사랑이셨다. 1950년 3월 1일에 외국인 최초로 건국공로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고, 2014년 10월 9일에는 한글 발전에 대한 공로로 외국인으로서 유일하게 금관문화훈장에 추서되었다. 또한 1896년에 우리 구전민요 아리랑 채보/채록한 공로로 2015년 10월 7일에 서울아리랑페스티벌에서 제1회 '서울아리랑상'이 추서되었다.

험버트박사를 움직인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다 표현하지 않았는가. 그의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의 지금 삶도 존재한다. 우리 모두가 험버트박사처럼 한국 사랑을 위해 뛰자는 얘기는 아니다.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임을 알기에 그리 큰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삶을 핑계로, 바쁨을 핑계로 내 이웃과 사회를 위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 안의 작은 떨림, 사랑의 시그널이 묻혀지질 않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施德不求望報).

9.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見利不求露分).

10.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해명하려 하지 말라(被抑不求申明).

그런데 최근 고려대학교에서 골프학을 가르쳤던 박 영민 교수가 '보왕삼매론(寶王三昧論)'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골프 삼매론(Golf三昧論)'을 정립했다.

Golfer들은 '골프삼매경(三昧境)'에 빠지고 싶어 한다. '삼매경(三昧境)'이란 '잡념을 떠나서 오직 하나의 대상에만 정신을 집중하는 경지에서 바른 지혜를 얻고 대상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다.

책 읽기의 즐거움에 빠지는 '독서삼매경(讀書三昧境)'처럼 말이다. '골프삼매경(三昧境)'에 빠지기 위한 '골프삼매론(Golf三昧論)'이라고 할 수 있다. 박 영민 교수의 '골프삼매론(Golf三昧論)'도 아래처럼 10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다.

1. 공이 항상 잘 맞기를 바라지 말라.
 2. 라운드 때 Trouble-Shot 기회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지 말라.
 3. 골프연습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
 4. 골프연습을 싫증내거나 잘 맞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라.
 5. 라운드 중에 요행(僥倖)을 바라지 말라.
 6. 라운드 중에 동반자에게 덕(德)을 보려고 하지 말라.
 7. 라운드 중에 동반자에게 Coach하려 들지 말라.
 8. 라운드 중에 동반자가 O.B를 냈을 때 멀리건(Mulligan)을 주라.
- 그러나 자기 자신은 멀리건(Mulligan)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9. 내기를 할 때 너무 많이 돈을 따려고 애쓰지 말라.
 10. 내기에서 아슬아슬하게 패했을 때 억울해 하거나 실망하지 말라.
- 그리고 Golfer들에게 아리송한 골프 용

어 2가지를 살펴보았다.

Golfer들에게 익숙한 '멀리건(Mulligan)'이란 말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멀리건(Mulligan)'이란 말이 사람 이름에서 유래했음을 아는 골퍼가 드물다.

1920년, 캐나다 골퍼, 'David Mulligan'이 Tee-Shot을 잘못 친 후 그 자리에서 Second-Shot을 다시 쳤다. 그리고는 "Correction Shot"이라고 외쳤다.

이 때부터 골퍼들은 벌타 없이 골프공을 다시 치는 것을 'David Mulligan'의 이름을 따서 '멀리건(Mulligan)'이라고 했지 싶다. 물론 캐디와 동반자들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미국 'Bill Clinton' 전임 대통령이 라운드 중에 멀리건(Mulligan)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일화가 있다. 동반자들이 마음속으로 주고 싶지는 않지만 겉으로 웃으면서 대통령 기분을 맞추려고 주었지 싶다.

또한 Tee-Ground에서 맨 첫 번째 공을 치는 골퍼를 '오너'라고 말한다. 이 때의 오너는 '주인, 소유주'란 뜻의 '오우너(Owner)'가 아니다. 4인 동반자 중에서 맨 먼저 공을 치는 '명예, 영예, 특권'이란 뜻의 '오너(Honor)'이다.

끝으로 내 머리를 얹어 준 사부(師父)들 중 한 분인 '이 일구 前.S그룹 CEO'가 30년 전, 제일CC에서 내게 가르쳐 준 '100점 Golfer의 평가기준'이다.

"Mr. 전! 골프 Score는 30점이니 Score에 연연하지 마세요. 옷이나 신발 등 Smart-Fashion 점수도 30점이에요. 그런데 Golf-Rule을 잘 지키고 동반자를 격려하고 배려하는 Manner점수가 40점이니 합해서 100점 만점이에요"라고.

따라서 90대 Score를 치는 보기 플레이 어로서 복장이 단정하고 Manner가 좋은 골퍼는 A, A+ 등급의 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싶다.//

자연과 미물이 사람에게 주는 교훈

안호원 (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칼럼니스트, 시인, 목사)



봄이 되면 만물이 소생한다고 하는데, 내 몸은 정반대로 너무나도 힘들게 봄을 맞이하는 것 같다. 1년 이상 넘게 잃어버린 삶을 살게

한 코로나 19 때문만은 아니다. 어쩔, 봄은 내게 세상에서의 인과 관계 등 극복해야 할 환경과 같은 것일 수도 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극복하면서 살아야 할 환경과 풀리지 않는 과제가 있다. 거짓과 속임수와 '탐욕(貪慾)'도 그런류에 포함된다고 생각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는 것은 원숭이부터 인간까지 영장류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새로운 봄은 다가왔지만, '희망(希望)'을 말하기 어려운 시점인 것 같다.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현재 우리 사회는 희망보다는 '절망(絶望)'의 징후가 짙다. 겨울의 흔적, 정녕 이 땅에도 꽃 피고 새가 노래하는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웬지 불안하기만 하다.

사실 상 내년 4월대선 체제에 들어간 시점에서,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을 보면서 문

득, 승려인 '만해(萬海)'의 산문 '모기'가 떠오른다. 만해는 모기에게 우리 인간이 배울 점이 많다고 했다.

설명인즉 '사람은 사람의 피를 서로 빼앗아 먹지만, 미물이라고 천대 받는 모기는 동족의 피는 빨아먹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파리'라는 '시(詩)'도 있다.(풍자가 마치 요즘 우리의 정치사(史)를 말해주는 것 같아 인간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너는(파리)이 세상에서 없어도 조금도 불가(不可)할 것이 없다'고 사람이 비꼬자, 파리가 사람에게 이렇게 답했다. "너희(사람)는 나(파리)를 더럽다고 하지만 너희 사람들이야말로, 나보다도 더욱 더럽다"고. 미물 중 미물인 모기와 파리가 사람보다 낫다고 바라보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보다 수준 높게 보는 것이 만해의 눈높이였던 것 같다.

이처럼 시인 만해는 세상을 당시에도 뒤집어 본 것이다. 그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아귀다툼으로 싸우는 것을 보고, 미물을 묘사 한 것 같다. 여설적으로 표현한 상상이지만, 공감이가 간다.

흔히 사람들은 사람답지 못한 사람에게 '개만도 못한'이란 표현을 섞어 욕을 하는

보왕삼매론(寶王三昧論)과 골프삼매론(Golf三昧論)

전대길 (병176기, (주)동양EMS 대표이사, 국제PEN한국본부 이사)



중국 명나라 때 '묘협'이라는 스님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설파한 10가지 내용이 '보왕삼매론(寶王三昧論)'이다. 매(昧)자는 '깨우칠 때(昧)'자다.

1.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念身不求無病).
2. 세상살이에 어려운 일이 없길 바라지

말라(處世不求無難).

3.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가 없길 바라지 말라(究心不求無障).

4. 수행에 마(魔)가 없길 바라지 말라(立行不求無魔).

5. 일을 도모함에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謀事不求易成).

6. 사람을 사귀에 있어 이롭기를 바라지 말라(交情不求益我).

7.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於人不求順適).

8. 덕을 베풀되 그 대가를 바라지 말라

데, 이 말을 듣는 개(犬)가 비웃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다.

그 이유는 사람은 필요에 따라 사람을 배반하지만, 개는 절대 주인을 배반하지 않고, 복종하며, 잔피를 부리지도 않고, 모함도 하지 않으며, 비리도 저지르지 않는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모기'나 '파리'나 그리고 '개'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이 있겠는가. 나이가 든 탓일까.

요즘 들어 눈이 침침해져서 글자들이 명확하게 보이지를 않는다. 또 잘 들리지도 않아 재차 물을 때도 많다. 안타깝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기에, 그리 속상해할 것도 없다.

눈이 잘 안 보이는 것은 이제 불필요한 것은 보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보라는 뜻이며,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역시 불필요한 말은 흘러 넘기고, 꼭 필요한 말만 들으라는 것이다.

머리가 허영게 되는 것은 멀리 있어도 나이트 '어르신'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보게 해 어른 대접받게 함이요, 나이 들어 깜빡깜빡하는 것은 지난 세월의 추억을 다 기억하지 말고, 좋은 추억만 간직하라는 '신(神)'의 뜻인지도 모른다.

모든 게 다 좋게 생각하면 다 좋은 것이다. 즉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만약 물이 파란색이거나 빨간 색으로 물들어 있다면, 자신(너)의 모습을 제대로 비춰 볼 수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욕심으로 물들어 있다면, 사물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다. 만약 물이 끓고 있다 해도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노여움으로 들끓고 있다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다. 만약 물에 이끼라도 끼어있거나, 풀로 덮여 있다 하더라도 네 모습을 비춰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어두운 무명에 쌓여 있다면 본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의 탐진치(貪瞋癡)를 하루 아침에 현신짝 버리듯 쉽게 버릴 수는 없다. 하나하나 일어나는 '일상(日常)'의 그 마음들에 속지 말고, 본질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수행(修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혹 살아오면서 우리는 스스로 했던 선택에 대한 후회나 미련 때문에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내가 만약 그 때, 그 선택을 했다면, 내 역사가 달라지고,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더 나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하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기에 내가 지금의 행복 된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음에 감사를 하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되는 것이다.

인생은 한권의 책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마구 넘겨 버리지만, 현명한 사람은 열심히 읽는다. 단 한번 밖에 인생을 읽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하지 않고, 먼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행복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시간을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불가(佛家)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초월적 존재인 어떤 절대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사람이 겪는 고통을 맞보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수행하는 체험적인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예년 같으면 여의도에 봄맞이 축제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북적일 수 있었겠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한산하기만 하다.

그러나 어김없이 윤중로 주변에는 하나 둘 꽃이 피기 시작했다. 그 중에 봄을 상징하는 벚꽃이 제일 먼저 눈에 띈다. 나뭇가지에 이름 모를 새가 앉아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여간해서는 눈에 잘 띄지도 않았던 작은 새한마리가 어찌해서 이제야 눈에 띄었을까.

맑게 개인 푸른 하늘도 마찬가지다. 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새도, 푸른 하늘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그만큼 없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마음이 있는 곳에 시선이 따라가게 마련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걸음걸이마저 부자연스러워진다.

이는 매사에 조심하며 정리 할 나이라는 자연에 법칙을 묵시적으로 암시하는 '신'의 배려인지도 모른다.

나이가 들면서, 특히 미물들을 통해 남은 삶을,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다.

정치꾼들의 탐욕으로 나라가 어수선하다. 웃을 일이 적은 세상, 그러나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는 말이 있듯이 억지라도 웃다보면 진짜 웃을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럼 행복해질 수도 있다.//

지금보증을 받아올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생각한 방안이 광부 5,000명과 간호사 2,000명을 파견하는 것이었다.

결국 이 지급보증 문제는 독일에서 일하는 우리 광부와 간호사들의 3년간 급여를 독일 은행인 '코메르츠 뱅크'에 매달 강제 예치하는 담보방식으로 해결했다.

1963년 11월 광부와 간호사 1진 600여 명이 처음 서독에 도착했다. 그때 선발된 1진 500명의 광부는 응모자 46,000명 중에서 약 100대 1로 선발된 사람들이다.

응모자 상당수가 대학졸업자와 중퇴자들이었다. 당시 남한 인구 2,400만명에 정부 공식 통계에 나타난 실업자만도 250만 명이 넘었다. ※ 그 당시 국민소득 → 태국 : 220불, 필리핀 : 170불, 한국 : 76불

이런 時節이었으니 매월 600마르크(160달러)의 보수에 지원자가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정규대학을 나온 학사 출신도 수두룩했다. 면접 볼 때 손이 고와서 떨어질까 봐 까만 연탄에 손을 비비며 거친 손을 만들어 면접에 합격했다.

이들 광부들은 '루르탄광' 지하 1,000m와 3,000m 사이 막장에서 1m 파들어갈 때마다 4-5마르크를 받았다.

1966년 12월 3년간의 고용기간을 채우고 귀국한 1진 142명의 광부들은 거의 전원이 1회 이상의 골절상을 입은 경험이 있고 실명자나 사망자도 다수 있었다.

1966년 1월 128명의 간호사들이 독일로 떠날 때의 월 보수는 440마르크(110달러)였다. 독일 땅에 도착한 한국 간호사들에게 맡겨진 일은 병들어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닦는 일이었다. 어린 간호사들은 울면서 '거즈'에 알콜을 묻혀 딱딱하게 굳어버린 시체를 이리 저리 굴리며 닦았다. 하루 종일 닦고 또 닦았다.

남자 광부들은 지하 1,000m 이상의 깊은 땅속에서 그 뜨거운 지열을 받으면서 열심히 일했다. 하루 8시간을 일하는 서독 광부들보다 10시간이 넘게 더욱 열심히 석탄을 캐다.

서독 방송과 신문들은 대단한 민족이라며 가난한 한국에서 온 여자 간호사와 남자 광부들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세상에 어찌면 저렇게 억척스럽게 일할 수 있을까?"해서 붙여진 별명이 "코리안 엔젤"이라고 불리었다.

1966~1976년까지 독일로 건너간 한국 간호사가 무려 10,030명에 이르렀고 1970년도 중반에는 서베르린에만 한국 간호사가 2,000명이 넘었다.

한편 1963~1978년까지 서독으로 건너간 남자 광부가 7,800여명에 이르렀으며 서독에 파견되었던 남자 광부와 여자 간호사들이 보내온 송금액이 연간 5,000만 달러로 한때 GNP 2%에 달했다.

이처럼 서독에 파견된 남자 광부와 여자 간호사가 열심히 일하여 호응이 좋자 서독 '뤼브케'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을 초청하여 서독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때 우리에게 대통령 전용기는 상상할 수도 없어 미국의 NORTH WEST 항공사와 전세 계약을 체결했지만 쿠테타군에게 비행기를 빌려줄 수 없다는 미국 정부의 압력 때문에 그 계약은 일방적으로 취소되었다.

그러나 서독 정부는 친절하게도 국빈용 항공기를 우리나라에 보내주었다. 어렵게 서독에 도착한 박정희 대통령 일행은 [당시 청와대 경제고문 자격으로 박대통령 통역을 맡았던 백영훈(74세, 전 중앙대학교 교수) 박사 동행] 거리에서 시민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뜨겁게 환영해 주었다. 코리안

간호사 만세!! 코리안 광부 만세!! 코리안 엔젤 만세!! 독어를 할 줄 모르는 박대통령은 창박을 보며 감격에 겨워 땡큐!! 땡큐!! 만을 반복해서 외쳤다.

박정희 대통령은 서독 '뤼브케'대통령과 함께 광부와 간호사들을 위로 격려하기 위해 탄광에 갔다.

1964년 12월 10일 오전 10시 55분 서독 루르지방 함보른 탄광의 한 공회장이었다. 얼굴과 작업복에 석탄가루가 묻은 500여 명의 한국인 광부와 한복차림의 한국인 여자 간호사 그리고 그날 행사에 참석했던 서독인들 앞에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났다.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女史가 단상에 올라섰다. 그 순간 함보른 탄광 광부들로 구성된 '브라스 밴드'가 애국가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차츰 커지던 애국가 소리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대목부터 목멘 소리로 변해갔고)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에 이르러서는 울음소리가 가사를 대신해 버렸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박대통령 내외와 광부, 간호사들이 통곡으로 애국가를 대신했다.

밴드의 애국가 연주가 끝나자 박정희 대통령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코를 풀더니 연단으로 걸어 나갔다.

"여러분 이역만리 타국에서 이렇게 상봉하게 되니 감개무량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몹시 부끄럽고 가슴 아픕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했나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합니다.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우리 후손들만큼은 결코 이렇게 타국에 팔려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정말 반드시 말입니다. 광부 여러분! 간호사 여러분! 가족이나 고향 생각에 괴로움이 많을 줄 알지만 비록 우리 생전에는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후손을 위하여 변영의 터전만이라도 닦아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후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시다."

눈물에 잠긴 목소리로 계속되던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광부, 간호사뿐 아니라 곁에 있던 육영수 여사와 서독 '뤼브케'대통령도 손수건을 꺼내 들면서 공회당 안은 눈물바다로 변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광부들에게 파고다 담배 500갑을 선물로 주고 돌아갈 차에 올라탔다.

탄광을 떠나는 승용차 안에서 박대통령은 "내가 죄인이다"라며 눈물을 흘렸고 옆에 있던 서독 '뤼브케'대통령이 "울지 마십시오, 분단된 두 나라가 합심하여 경제부흥을 이룩시다."하며 위로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은 서독 국회에서 연설하는 자리에서 "돈 좀 빌려 주세요! 한국에 돈 좀 빌려 주세요! 여러분의 나라처럼 한국은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이 공산주의와 싸워 이기려면 분명 경제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 돈은 꼭 갚겠습니다. 저는 거짓말 할 줄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돈 좀 빌려 주세요"를 반복해서 말했다.

그 당시 한국은 자원도 돈도 없는 세계 120여개 국가중에서 가장 잘 못사는 나라였다. 필리핀 국민소득 170불, 태국 220불, 한국은 겨우 76불에 불과했다.

당시 서독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의 관심을 끈 것은 독일의 곳곳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아우토반) Auto-bahn이었다. 방독 첫날 '본'에서 '퀵른'으로 이동하는 20km 구간의 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 박대통령

朴正熙 대통령의 조국 근대화 업적

채낙호 (예 준위, 준사관 28기, 광주지부 고문)



1961년 '5.16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조국 근대화 기치를 내걸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지만 극심한 외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5.16 혁명 직후 미국은 혁명세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만약 그들을 인정하면 아시아 또는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그때 미국은 주던 원조도 중단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은 "존 에프 케네디"였다. 박정희 소장은 케네디를 만나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 백악관을 찾았지만 케네디 대통령은

박정희 장군을 만나주지 않았다.

호텔에 돌아와 빈손으로 귀국하려고 집을 싸면서 박정희 소장과 수행원들은 서러워서 한없는 눈물을 흘렸었다.

가난한 한국에 돈 빌려줄 나라는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우리와 같이 분단된 공산국 동독과 대치한 서독에 돈을 빌리려 대사(경제사절단)를 파견해서 미국의 방해로 무릅쓰고 1억 5,000만 마르크(4,000만 달러)의 상업차관을 얻는데 성공했다.

당시 독일은 우리처럼 분단 상황이었고 '라인강의 기적'으로 불린 눈부신 경제발전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은 문제는 과연 지급보증을 누가 서느냐였다. 당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은 두 차례나 중간에서 차를 멈추게 했다. 박대통령은 독일인 실무자들에게 “고속도로 건설은 어떻게 했느냐, 건설비는 얼마나 드느냐” 등 꼬치꼬치 물었고 메모지에 답변 내용을 꼼꼼히 적었다.

그 당시 박대통령을 수행했던 통역인 백영훈 박사는 박대통령이 메모지에 남한의 지형도를 그리는 것을 보았다며 아마 그때 정부 고속도로의 구상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회고했다.

그 후 백영훈 박사는 1965-1966년 서독을 오가면서 박대통령이 요구한 고속도로 관련 자료를 모아오는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의 첫 고속도로인 서울-인천간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된 것은 그 후 4년이 지난 1968. 12. 21.이었고 이어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것은 1970. 7. 7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 고속도로(아우토반)에 차를 세우고 고속도로 실무자에게 꼬치꼬치 물으며 메모한지 만 6년 만에 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한 한국의 고속도로(아우토반)를 갖게 된 것이다.

지난 날 50-60대들은 머리카락을 잘라 가발을 만들어서 외국에 내다 팔았다. 동네마다 옛장수를 동원하여 ‘머리카락 파세요!’하며 길게 땅아 늘린 아낙네들의 머리카락을 모았다.

시골에 나이 드신 분들은 서울로 공부하러 간 아들놈 학비 보태주려고 머리카락을

잘랐고, 먹고 살 쌀을 사기 위해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래서 한국의 ‘가발산업’이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싸구려 플라스틱으로 예쁜 꽃을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곰 인형을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전국에 쥐잡기 운동을 벌였다. 쥐 털로 일명 코리안 밍크를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돈 되는 것이라면 무엇인지 다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1965년에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했다. 세계가 놀랐다. 저 거지들이 1억 달러를 수출해 하며 ‘한강의 기적’이라고 전 세계가 경의적인 눈빛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우러러 보았다.

조국 근대화의 전화는 1960년도에 서독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이었다. 여기에 월남전 파병은 우리 경제회생의 기폭제가 되었다. 참전용사들의 전투 수당 일부로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한반도에 동맥이 힘차게 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더운 사막의 중동 건설현장에서 일한 50-60대가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한국이 1988년도 하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2002년도에는 한·일 공동으로 월드컵 축구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수출 2,542억 2,000만달러를 달성한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을 등지고 타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고향을 그리워한다.

그들의 고향에는 실지렁이 오솔길이 도시로 빠져나간 동구 밖 서낭당 팽나무 아래 타관으로 떠난 자식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합장한 어머니의 기도가 묻혀있다.

우리는 어렵게 고향을 떠난 어머니의 자

식이요, 미래의 서낭당 새끼줄에 꿈의 나라를 엮어 줄 자식의 부모가 된다.

어머니의 기도처럼 다시는 이 땅에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이 창궐하지 않기를 바라며 암울했던 시간의 강을 건너온 모든 국민이 빠른 시간 내에 안정된 생활의 틀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자기답게 살자

안달현 (예 준위, 준사관 47기, 부산지부 문화부장)



사람마다 자기 그릇이 있고 해야 할 몫이 있다. 그 그릇에 따라 그 몫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릇이 틀리는 남과 비교를

하지 말고 자신의 삶에 충실할 때 저마다 특성을 드러내면서 조화롭게 사는 것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의 한 부분이니까 이 세상과 조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풀과 나무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신비의 꽃을 피운다. 봄에 피는 진달래, 여름에 피는 봉숭아, 겨울 동백들은 다 자기 특성에 따라 피어나고 자기답게 살다가 일생을 마친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

은 없다. 변하지 않는 것도 없다. 즐거운 일도 괴로운 일도 한때 잠시 머무는 것 뿐이다. 삶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은 각자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답게 사는 것이다. 범구경에 이르기까지 깊은 뜻은 맑고 고요해 물결이 흐리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를 듣고 그 마음 즐겁고 편안하다.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어진 사람은 뜻이 굳세어 비방과 칭찬에도 움직이지 않는다.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과 행동을 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그 형체를 따른다.//

코로나19의 종식

김완용 (예 준위, 준사관58기, 한국공무원문학협회장)



성큼 다가서는 햇살이 반가운 봄날이다. 먼 산에는 겨울의 살점들이 희끗희끗 남아 겨울의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그러나 굴러가는 세월의 연속성에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붉게 입술 붉히던 동백꽃을 떨어뜨리고, 남쪽 해안을 달랠 바람은 어느덧 들녘을 맴돌고 산을 넘어 북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이미 봄은 세월의 수레를 돌리며 반도의 산하에 꽃을 피우고, 푸름의 붓을 들어 칠하고 있다.

암울했던 지난 한 해 동안 마스크 속에 미소를 감추어 놓고 살아야 했던 우리는 창궐한 코로나19라는 전염병과 싸우며 생활의 리듬마저 잃어야 했다.

세월의 시계가 멈춰버린 1년, 우리는 매일매일 도착하는 뉴스 속에 전염병의 확진자 수와 면역력을 만들어 줄 예방백신에 관한 정보에 귀 기울이고 살아왔다.

그러나 희망의 판도라 상자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간혹 분통 터지는 뉴스는 맹신적인 종교집단과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집단행동이 방역대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을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그로 인하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방역대책은 연장되고, 나라의 새싹인 어린이들은 학교에 등교하여 받아야 할 대면수업을 못하고 집안에서 정보매체로 받는 온라인이란 새로운 교육방법을 선택해야 했다.

교육이라는 것이 어디 수학공식을 머릿속에 넣고, 외국어 단어를 암기하는 것만이 교육이던가? 학생들에게 교육이란 교과

과목에 따라 나열되어 있는 교재의 진도과정이 아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은 집단생활로 대면을 통하여 사회성을 길러주는 것이며, 인성을 다듬어 주는 것이다. 그래야만 국가의 미래가 튼튼한 법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갈 곳을 잃었다. 방역당국에서 제시한 제한된 시간 내의 영업과 제한된 인원만이 이용할 수 있었던 악몽의 시간들 때문이다. 심지어 코로나19의 확산이 집단적으로 발생했던 영업장소들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하는 곳도 있었다. 경제가 침체되고 어려운 살림을 지속하기 위하여 가장들은 본업을 팽개치고 ‘투잡’이라는 직업을 선택해야 겨우 가족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다. 그들에게 희망이란 오직 빠른 시일 안에 백신의 개발과 치료제였으며, 전염병 없는 거리에서 정상적인 생활의 리듬을 찾아 안정된 장사를 하는 일이었다.

아침 11시면 피로가 쌓여 입술이 부르튼 방역관리청 담당자들이 TV 앞에 나와 목이 아프도록 부탁하는 브리핑의 내용을 듣고 보면서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어떻게든 정부의 목덜미만 잡으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몰지각한 발언들은 우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이번에 창궐한 질병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인의 재앙이다. 우리는 이 난국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헤쳐나가야 한다.

이제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는 백신들이 곳곳에서 개발되고 우리도 백신을 맞고 있다. 그러나 방심하지 말고 질병과 싸우는 전쟁터가 이제부터라는 생각으로 더욱 경계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가슴 한 구석에 고향을 담아두고 산다. 도심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도 고향은 있겠으나 시골에서 태어나 고향

봄

이윤우 (예 소령, 공사 6기생 회장, 한국항공기술협회 이사)

따스한 봄별에
얼었던 땅
축축

보슬보슬 봄비에
가지마다
파릇 파릇

훈훈한 봄바람에
봄꽃들
활짝

질어가는 봄기운에
여인의 가슴
울렁울렁



※ 본지에 기고된 글들은 본회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